

KLSI

ISSUE PAPER

제 154호
2021-13호
(2021.8.18)

www.ksli.org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I - 규모 추정, 노동상황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프리랜서 논의와 연구 경향들
 - III. 프리랜서 일자리 규모와 특징
 - IV. 맺음말
- [별첨자료] 산업, 지역 프리랜서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첫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구분의 차이가 매우 큼. 별도의 법률적 고용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추정도 차이가 있음. 대체로 프리랜서는 ‘비임금노동자’로서의 종사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인(독립계약자, 개인 사업자, 단독 노무제공자, 1인 자영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임.
- 둘째, 기존 프리랜서 연구들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함바 있음. 국내 프리랜서 규모(모델1부터 모델5까지 유형화)는 2018년 기준 약 363만명(모델3)에서 400만명(모델4)으로 취업자의 13.8% 내외로 볼 수 있음. 프리랜서 성별 분포는 모델3 기준 남성이 69.7%(여성 30.3%)이고, 모델4 기준 65.7%(여성 34.3%)였음. 프리랜서 연령 분포는 모델3 기준 30대 이하가 14.6%이며, 모델4 기준 30대 이하는 15.9%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44.9%~90.1% 사이(모델3: 257만원, 모델4: 254만원)였음. 모델3(90.1%)과 모델4(88.9%)의 프리랜서 소득 기준은 취업자 소득보다 10%p 정도 적은 상황임. 프리랜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의 54.7%~104.4% 사이임.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44.8시간) 보다는 높은 수치(모델3: 46.7시간, 모델4: 46.4시간)로 나타남.
- 넷째, 프리랜서 평균 경력은 취업자의 평균 경력기간보다 긴 편(모델3: 13.7년, 모델4: 12.9년)으로 나타났음. 한편 프리랜서 교육훈련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프리랜서 유형별 교육훈련 유경험자는 10명 중 1명(모델3: 6.3%, 모델4: 7.5%)도 안 되는 상황임. 프리랜서 교육훈련 유경험자 중 이수경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모델3 : 개인 32.8%, 모델4: 27%) 했음.
- 다섯째, 지난 시기 국내에서도 프리랜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나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제는 ‘노동 밖의 노동’ 혹은 ‘제도 밖의 노동’으로 불리는 프리랜서 노동형태를 다차원적으로 고민할 시점임. 이미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제도적 보호나 이해당사자 주체들이 형성되어 다양한 제도적 모색과 지원을 추진한지 오래된 상황임.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 ¹⁾

- 규모 추정과 노동상황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위원

I. 머리말

- 건축가, 피디, 아나운서, 리포터, 미술음악치료사. 모두 전문 프리랜서 직업들임. 언론에서 프리랜서는 주로 유명인사들의 사례가 소개 되고 있음. 무엇보다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다루지만 고소득 이야기는 빠지지 않음. 영화나 방송에서 프리랜서 직업은 커피 전문점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옴. 그런데 프리랜서의 일은 밝기 만한 것일까. 또한 프리랜서 미래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미래상일까.
-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회사 직원이 아님.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제작비’로 나감. 그러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건강검진도 없고, 당연히 연차휴가도 없음. 프리랜서는 회사나 고용주들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모든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함. 소득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도 심함. 합리적 계약도 이루어 질 수 없음. 일하는 곳에서는 신분증이 아니라 출입증을 받고 일하면 다행임. 그래서 프리랜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 불과함.
- 국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214만명(정홍준, 2018), 플랫폼노동자는 약 179만명(장지연, 2020)으로 추정되고 있음. 프리랜서도 많게는 약 400만명 내외로 추정(김종진, 2020) 되기에 적지 않은 규모임. 문제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고용형태임. 프리랜서(Freelancer)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불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주로 ‘자유직업인’으로 지칭됨. 프리랜서는 이미 기존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 된지 오래임. 명칭상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순간,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의 미비는 고용의 왜곡을 초래함.

1) 이 자료는 김종진·박관성 외(2020), 『프리랜서 노무형태 파악 위한 실태조사』, 유니온센터·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재구성한 것임. 프리랜서 이슈페이퍼는 2021년 하반기 두 차례 이슈페이퍼로 발간할 예정이며, 두 번째 글은 <프리랜서 실태 - 불안정성과 유형별 특징: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으로 9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임.

- 이들 프리랜서는 불특정 혹은 특정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 보수나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때론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기도 함.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 중에서는 노동자성이 높은 ‘의존적 자영노동자’(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라고 하여, 전속성이 높은 직업직군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임. 프리랜서의 열악한 처우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음(ILO, 2015; OECD, 2014).²⁾
- 새로운 노동형태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의 규모나 대책 논의가 국내에서도 활발하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규정되어 제도화가 더딘 상황임. 이 글은 전국과 지역차원의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노동시장 및 일자리 상황을 정리한 것임.

II. 프리랜서 논의와 연구 경향들

1. 어떤 새로운 노동의 출현인가?

- 최근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의 서비스화(servitisation)와 맞물려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전 세계적으로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방식’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주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 독립계약자와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주목받고 있음. 특히 온라인노동은 거래비용을 거의 ‘0’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외주화 및 노동유연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음(Drahokoupil & Piasna, 2017).
-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비공식노동(informal work) 혹은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출현은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음.³⁾ 이들 집단은 기존 법제도(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2) ILO(2015),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Experts on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Geneva, 16-19 February 2015);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Paris, OECD).

3) EuroFound는 종래의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 유럽에서 새롭게 나타난 9가지 노동에 주목하는데 ㉠근로자 공유(employee sharing), ㉡일자리 공유(job sharing), ㉢바우처 노동(voucher-based work), ㉣임시 관리업무(interim management), ㉤임시직 노동(casual work), ㉥모바일 업무(ICT-based mobile work), ㉦클라우드 고용, ㉧포트폴리오 노동(portfolio work), ㉨협력적 자영인(collaborative models) 등이 그것임(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함.

- 한편 이러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관련하여 가이 스탠딩(프리카리아트)이나 데이비드 와일(균열 일터)은 일찍이 여러 논의를 전개했었던 대표적 논자들임. 가이 스탠딩은 불안정한 직업과 저임금,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배제받고 있는 집단으로 ‘프리카리아트’(Precariat)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데이비드 와일은 ‘고용털어버리기’(shedding employment)로 지칭하면서, 프랜차이징 등 기업의 유연전략을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과 고용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음.
 - 자본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비용 축소와 이윤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에서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으로 확장되고 있음. 기존 양면시장에서는 시장의 하청, 아웃소싱 고용문제 초점이었다면, 현재는 각종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용의 프리랜서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freelancer)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자로 지칭되는 자유로운 직업인으로 지칭되나 유럽(독일: 자유 직업인, 프랑스: 자유 직종 travailleurs indépendants)이나 영미(미국: 독립계약자, 영국: 독립취업자) 국가들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 호명되고 있음. 영미권에서는 주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로 지칭하고 있음.

미국 노동통계국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 독립계약자 자영업, 임금근로자와 무관하게 독립계약자, 독립컨설턴트,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자 ⁴⁾
2. 미국 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간헐적으로 독립계약자 규모 등 추정. 이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인) 사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판단

영국 정부 비즈니스 관계 부처 (BIS: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1. 프리랜서 자영업자(self-employed) 고용상의 지위 가지며, 컨설턴트, 청부업자와 같은 계약 유형에 속하는 자
2. 자영업자로서 산업안전이나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workers)에게 폭넓게 보장되는 고용관련 권리(employment rights)가 부여되지 않고, 조세나 영국의 사회보장의 중추가 되는 국민보험 기여금도 스스로 처리해야 함. ⁵⁾

- 영국에서 프리랜서는 복수의 고객(client)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계약’(contract for services)하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대해서 노동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용자도 피용자도 아닌 자영업자로서 숙련된 전문직(skilled professional)으로 정의되고 있음(황준욱 외 2009; 이승렬 외, 2013).

4) “Independent contractors” are workers ident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dependent consultants, or freelance workers, whether they were self employed or wage and salary workers” 로 규정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Bureau of Labor Statistics 웹사이트(<http://www.bls.gov>) 참조할 것.

5)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웹사이트 (<https://www.gov.uk/contract-types-and-employer-responsibilities>) 참조할 것.

2. 프리랜서 찾는 각기 방법들

- 그만큼 프리랜서는 경제활동의 종사상지위로 구분되기 보다는 일하는 형태나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봐야 함. 우리 사회에서 프리랜서는 △주로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을 하지 않는 자로서 구분하면, 추가적으로는 △점포나 매장 등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과거에는 넣었지만, 현재는 부적합하고 전자의 2개만 구분·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면 타투이스트나 디자이너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형태를 개인 혹은 공동으로 작업장을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때문에 프리랜서를 1인 독립 사업자 형태의 단독노무제공자로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임. 최근에 독립계약자는 일자리(jobs)의 구분(직업)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접목되면서 일거리 혹은 일감(short jobs, projects, tasks)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몇몇 선행연구에서 프리랜서 정의와 규모 추정을 위한 주요 구분은 <표 1>과 <표 2>처럼 각 연구자마다 판단변수와 이에 따른 정의가 다양함. 크게는 임금노동자 포함여부, 프리랜서 자기인식 여부, 개인 점포운영 여부, 업무관련 자기결정권 여부, 전문직·관리직 여부, 자발적 직업 선택 여부, 계약방식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선행연구들의 프리랜서 정의

구분	프리랜서 정의와 규정
근로환경조사	비임금노동자 중,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자
전병유 외(2017)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중,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자
정흥준·장희은 (2019) ¹⁾	다음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본인의 점포(직업장)를 가지고 있고, 계약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보수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정하는 경우 ③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일체의 업무지시와 퇴근시간 제약이 모두 없는 경우
이승렬 외(2013) ²⁾	① 광의의 프리랜서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② 협의의 프리랜서 정의: 광의의 프리랜서 중, 관리직 및 전문직
오재호 외(20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관리·전문직종 종사자 + 특수형태종사자 중 자발적이면서 관리·전문직종에 종사

* 주: 1) 정흥준·장희은(2019)은 '진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근로형태'를 정의하는 것임.

2) 이승렬 외(2013)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규모 추정 연구와, 연구자 조작적 정의에 의한 규모 추정 연구 모두 진행하였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규모추정 방식은 전병유 외(2017)와 동일하여 이 글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한 규모 추정치만을 확인.

- 각 연구에서 정의한 프리랜서 정의에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규모 추계를 위한 기본 전제임.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 분류지표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분류지표는 ① 임금노동자 중 특수형태근로자와 임시·일용직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와,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만을 프리랜서로 한정하여 볼 것이냐 여부임.

〈표 2〉 선행연구들의 프리랜서 정의 주요 지표

	프리랜서 규정 지표						
	임금노동 포함	프리랜서 자기인식	개인 점포운영	업무관련 자기결정	전문/관리 직무	직업선택 자발성	계약방식
전병유 외(2017)	○	○					
정흥준 장희은(2019)			○	○			○
이승렬 외(2013)	○				○		
오재호 외(2019)	○				○	○	

* 주: 기존 선행연구의 프리랜서 개념적 정의를 모두 확인 가능한 국내 통계 자료(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이고, 그 다음 활용가능성이 큰 데이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정도임. 근로환경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프리랜서는 한국노동패널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확인 가능함.

- 기존 논의에서와 같이 프리랜서 정의는 사회적 협의나 학술적 정의가 확정 된 것이 없으며, 연구자의 개념 규정과 조작적 정의에 따라 프리랜서 규모와 종사상 유형에 차이가 큼.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 ‘아르바이트’ 연구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각 연구마다 다양한 규정이 논의된 것과 같음 맥락임.⁶⁾
- 이 글에서는 기존 프리랜서 개념과 정의, 구분 방법을 차용하여, 프리랜서를 ‘협의부터 중범위, 광의’까지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이 글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프리랜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프리랜서 규모 추정 - 5가지 유형 모델화

- [모델1]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보수 및 노동시간을 자신이 정하는 자
- [모델2] 모델1 +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표준직업대분류상 관리직 및 전문직
- [모델3] 1인 자영업자
- [모델4] 모델3 + 특수고용노동자
- [모델5] 모델4 + 임시·일용직 중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

6) 홍주환·김종진 외(2016), 김종진 외(2019), 오선정(2018)의 연구에서는 기존 아르바이트 관련연구의 정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라 아르바이트 정의를 노동법 및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연구한바 있음. 국내 청년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논의는 이승윤 외(2019)를 참조할 것.

Ⅲ. 프리랜서 일자리 규모와 특징

1. 프리랜서 일자리 규모

가. 프리랜서 유형별 규모

- 2018년 기준 노동시장의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에 따라서 적게는 19만명에서 많게는 469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이글에서 프리랜서는 5개 유형에 따른 규모를 최소 64만명에서 최대 469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모델3과 모델4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프리랜서는 약 363만명(모델3)에서 400만명(모델4)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광역 시도의 지역별 프리랜서 규모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5분의 2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국내 취업자 대비 프리랜서 규모 추정 추이(2009~2018, 단위: 천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행 연구 구분 방식	근로환경조사	490	428	371	377	443	204	231	215	244	236
	전병유 외(2017)	651	608	448	503	619	390	426	485	560	570
	정흥준·장희은(2019)	1,021	909	852	904	903	250	242	218	229	252
	이승렬 외(2013)[모델3]	4,668	4,681	4,700	4,927	4,899	4,889	4,659	4,778	4,690	4,735
	(경찰부가조사)					4,824	4,793	4,556	4,628	4,650	4,535
	이승렬 외(2013)[모델2]	538	627	562	623	629	688	600	672	686	652
	(경찰부가조사)					632	678	651	689	679	667
오재호 외(2019)	538	621	557	611	614	668	586	646	668	641	
연구자 구분 방식	모델1 프리랜서	951	828	800	859	865	208	180	156	171	194
	모델2 프리랜서	1,240	1,212	1,122	1,237	1,238	709	639	660	668	667
	(경찰부가조사)					556	610	570	611	602	592
	모델3 프리랜서	3,560	3,566	3,605	3,794	3,792	3,791	3,630	3,661	3,581	3,638
	(경찰부가조사)					4,270	4,259	4,055	4,126	4,153	4,030
	모델4 프리랜서	3,893	3,891	3,933	4,145	4,120	4,111	3,931	4,049	3,962	4,000
	(경찰부가조사)					4,824	4,793	4,556	4,628	4,650	4,535
모델5 프리랜서	4,271	4,345	4,393	4,644	4,663	4,786	4,587	4,636	4,563	4,699	
(경찰부가조사)					5,439	5,434	5,224	5,248	5,280	5,131	

* 주: 1) 기본 데이터 통계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규모 / '(경찰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규모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2013년 이후 산업 및 직업 분류 개정으로 이전 데이터와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 제시.

*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시계열정비후), 2010년~2019년, 원자료.

〈표 4〉 국내 취업자 대비 프리랜서 규모 비율 추이(2009~2018,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행 연구 구분 방식	근로환경조사	2.2	1.9	1.5	1.5	1.8	0.8	0.9	0.8	0.9	0.9
	전병유 외(2017)	2.9	2.7	1.9	2.1	2.5	1.5	1.7	1.9	2.1	2.2
	정흥준·장희은(2019)	4.6	4.1	3.5	3.7	3.7	1.0	1.0	0.9	0.9	1.0
	이승렬 외(2013)[광의]	20.9	20.9	19.5	20.2	19.8	19.4	19.0	18.7	18.0	17.9
	(경찰부가조사)					18.9	18.3	17.3	17.3	17.3	16.9
	이승렬 외(2013)[협의]	2.4	2.8	2.3	2.6	2.5	2.7	2.4	2.6	2.6	2.5
	(경찰부가조사)					2.5	2.6	2.5	2.6	2.5	2.5
오재호 외(2019)	2.4	2.8	2.3	2.5	2.5	2.6	2.4	2.5	2.6	2.4	
연구자 구분 방식	모델1 프리랜서	4.3	3.7	3.3	3.5	3.5	0.8	0.7	0.6	0.7	0.7
	모델2 프리랜서	5.6	5.4	4.7	5.1	5.0	2.8	2.6	2.6	2.6	2.5
	(경찰부가조사)					2.2	2.3	2.2	2.3	2.2	2.2
	모델3 프리랜서	15.9	15.9	14.9	15.6	15.4	15.0	14.8	14.3	13.7	13.8
	(경찰부가조사)					16.7	16.3	15.4	15.5	15.4	15.0
	모델4 프리랜서	17.4	17.4	16.3	17.0	16.7	16.3	16.0	15.8	15.2	15.1
	(경찰부가조사)					18.9	18.3	17.3	17.3	17.3	16.9
모델5 프리랜서	19.1	19.4	18.2	19.0	18.9	18.9	18.7	18.1	17.5	17.8	
(경찰부가조사)					21.3	20.8	19.8	19.7	19.6	19.1	

* 주: 1) 기본 데이터 통계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규모 / '(경찰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규모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2013년 이후 산업 및 직업 분류 개정으로 이전 데이터와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 제시.

*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시계열정비이후), 2010년~2019년, 원자료.

〈표 5〉 국내 프리랜서 규모 추정 지역별 현황(2018)

	프리랜서 규모(천명, 가중치 적용)					프리랜서 규모(가중치 미적용)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전 체	194	667	3,638	4,000	4,699	76	199	1,265	1,360	1,532
서울	28	167	490	526	727	8	35	137	149	192
부산	4	10	163	176	245	1	4	69	73	91
대구	8	20	150	179	213	4	7	54	60	70
대전	4	15	86	99	103	2	5	27	29	32
인천	36	67	242	270	299	10	21	82	90	99
광주	1	2	109	125	150	1	2	28	33	39
울산	0	18	51	55	73	0	7	24	26	31
경기	34	185	843	923	1,081	13	52	272	293	335
강원	5	9	98	112	152	2	4	38	39	44
충북	0	31	133	151	163	0	6	47	51	54
충남	19	26	213	230	246	8	11	84	90	95
전북	6	10	204	207	231	2	5	68	69	73
전남	4	23	209	212	224	3	6	105	107	111
경북	11	19	252	317	329	7	10	94	108	112
경남	33	49	288	312	355	14	19	110	117	127
제주	0	4	71	71	73	0	1	18	18	19
세 종	2	13	34	34	34	1	4	8	8	8

* 주: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다른 국가 혹은 정부기관 조사 노동통계 데이터 중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별 분석시 모집단 추정에 한계가 있음. 가중치는 통합패널 횡단면 가중치 적용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 2018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나. 프리랜서 성별, 연령별 규모

- 프리랜서 유형별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 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모델3의 남성 비율은 69.7%(여성 30.3%), 모델4의 남성 비율은 65.7%(여성 34.3%)였음. 모델3의 30대 이하는 14.6%이며, 모델4의 30대 이하는 15.9%로 확인되며, 프리랜서 유형별 구분에서 협의로 구분하여 볼 경우 모델3의 30대 이하는 비율은 32.8%(여성 50.8%)로 확인됨.
- 프리랜서 유형 모델3은 농업·임업·어업(21.5%), 도매 및 소매업(19.2%) 비율이 많고, 모델4는 도매 및 소매업(19.5%), 농업·임업·어업(19.1%) 비율이 가장 많음. 그러나 모델2로 보면 교육서비스업(41.3%), 부동산업(14%), 예술·여가·스포츠업(12.8%), 전문과학기술업(10.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부표1] 참조).

〈표 6〉 프리랜서 성별, 연령별 규모 분포 추정(2019, 단위: 천명)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전체		293	100.0	2,875	100.0	3,057	100.0	3,282	100.0
성별	남성	293	49.2	2,875	69.7	3,057	65.7	3,282	62.3
	여성	303	50.8	1,252	30.3	1,598	34.3	1,990	37.7
연령대	10대	1	.2	3	.1	3	.1	16	.3
	20대	51	8.6	130	3.1	179	3.8	370	7.0
	30대	142	23.8	470	11.4	557	12.0	720	13.6
	40대	203	34.0	865	21.0	1,027	22.1	1,161	22.0
	50대	137	22.9	1,178	28.5	1,336	28.7	1,400	26.6
	60세 이상	63	10.5	1,481	35.9	1,553	33.4	1,606	30.5

* 주: 모델1부터 모델5까지 유형별 분석에서 자료 대표성을 위해 경향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를 위해 모델1은 제외했음.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 프리랜서 일자리 조건 - 임금, 시간, 교육

가. 임금

-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44.9%~90.1% 사이임. 모델3의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약 257만원이고, 모델4의 월평균 소득은 약 254만원이었음. 모델3의 임금은 취업자 소득 대비 약 90.1% 수준이고, 모델4는 88.9% 수준임.

〈표 7〉 프리랜서 각 유형별 임(보수소득) 추이

	평균 소득(만원)						소득격차(%)[취업자=100]					
	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2009	211	166	172	179	177	171	100.0	78.4	81.5	84.7	83.8	81.0
2010	218	176	179	187	185	179	100.0	80.8	82.0	85.9	84.9	82.4
2011	229	192	202	199	198	191	100.0	83.9	88.4	87.2	86.6	83.7
2012	238	199	207	208	207	199	100.0	83.8	87.3	87.6	86.9	83.9
2013	248	207	215	216	215	206	100.0	83.5	86.6	86.9	86.7	83.0
2014	255	139	233	224	221	215	100.0	54.5	91.6	88.0	86.9	84.3
2015	257	178	218	221	222	213	100.0	69.3	84.9	86.1	86.2	82.8
2016	266	131	226	232	231	223	100.0	49.0	85.0	87.2	86.9	83.8
2017	273	140	223	237	235	227	100.0	51.1	81.6	86.9	85.8	83.1
2018	286	128	251	257	254	242	100.0	44.9	88.0	90.1	88.9	84.7

*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가중치는 통합패널 횡단면 가중치 적용.)

나. 노동시간

- 프리랜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의 54.7%~104.4% 사이임. 프리랜서 모델3은 46.7시간, 모델4는 46.4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모델3과 모델4의 노동시간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44.8시간) 보다는 높은 수치임.

〈표 8〉 프리랜서 유형별 노동시간 추이

	평균 노동시간						노동시간 격차(%)[취업자=100]					
	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2009	49.5	45.0	44.4	50.5	50.1	49.6	100.0	91.0	89.6	102.0	101.2	100.1
2010	48.5	44.4	43.4	49.3	48.9	48.5	100.0	91.5	89.5	101.5	100.7	100.0
2011	47.7	45.6	44.8	49.4	49.1	48.7	100.0	95.6	94.0	103.7	103.0	102.1
2012	47.6	43.2	43.0	49.6	49.2	48.8	100.0	90.8	90.3	104.2	103.4	102.6
2013	47.0	42.9	42.1	48.4	48.2	47.6	100.0	91.3	89.6	103.1	102.6	101.3
2014	47.2	22.3	34.9	48.9	48.5	47.8	100.0	47.2	73.9	103.6	102.8	101.3
2015	45.9	22.3	34.3	47.6	47.3	46.8	100.0	48.5	74.8	103.7	103.0	101.9
2016	46.0	24.9	34.2	47.4	47.0	46.4	100.0	54.2	74.3	103.0	102.3	101.0
2017	45.5	25.0	35.4	47.3	46.9	46.4	100.0	54.9	77.8	103.8	103.0	102.0
2018	44.8	24.5	34.8	46.7	46.4	45.9	100.0	54.7	77.8	104.4	103.6	102.6

* 주: 가중치는 통합패널 횡단면 가중치 적용.

*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표 9〉 프리랜서 유형별 경력년수 추이

	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2009	8.4	10.6	9.5	13.2	12.4	11.6
2010	8.2	12.1	9.9	12.9	12.1	11.1
2011	8.2	10.2	9.3	13.4	12.6	11.6
2012	8.3	10.9	9.6	13.3	12.5	11.4
2013	8.4	9.6	9.0	13.5	12.7	11.6
2014	8.7	10.9	8.4	13.5	12.8	11.4
2015	8.8	10.4	8.8	14.1	13.4	12.0
2016	9.0	10.0	8.6	13.8	12.8	11.6
2017	9.0	12.2	8.8	13.6	12.8	11.6
2018	9.0	13.0	10.4	13.7	12.9	11.5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가중치는 통합패널 횡단면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다. 경력기간

- 프리랜서 평균 경력은 취업자의 평균 경력기간보다 긴 편이며, 모델3의 프리랜서 평균 경력기간은 약 13.7년, 모델4는 12.9년으로 나타났음. 2009년 대비 2018년 경력기간은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업계 평균 경력이 13년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교육훈련

- 프리랜서 교육훈련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프리랜서 유형별 교육훈련 유경험은 모델3(6.3%)과 모델4(7.5%) 모두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상황임. 프리랜서 교육훈련 유경험자 중 이수경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데, 모델3은 개인이 32.8%, 모델4는 27%로 나타남.

〈표 10〉 프리랜서 교육훈련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교육훈련 경험여부	있음	8	4.0	24	3.5	229	6.3	302	7.5	324	6.9
	없음	186	96.0	644	96.5	3,409	93.7	3,699	92.5	4,369	93.1
교육훈련 경로	회사	0	0.0	0	0.0	53	23.2	119	39.6	127	39.2
	정부	1	11.5	1	3.8	93	40.7	93	30.9	105	32.3
	개인	7	88.5	19	81.6	75	32.8	81	27.0	85	26.2
	기타	0	0.0	3	14.6	8	3.3	8	2.5	8	2.3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교육훈련 비용 지급방법	본인	7	88.5	23	96.2	112	49.0	117	38.8	120	37.2
	가족	0	0.0	0	0.0	0	0.0	0	0.0	0	0.0
	회사	0	0.0	0	0.0	39	17.0	103	34.1	113	34.8
	정부	1	11.5	1	3.8	78	33.9	82	27.2	91	28.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8년 원자료(가중치는 통합패널 횡단면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IV. 맺음말

-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 흐름임. ‘프리랜서’ 정의가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법률적 고용 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추정도 차이가 있음.
 - 대체로 프리랜서는 ‘비임금노동자’로서의 종사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인(독립계약자, 개인 사업자, 단독 노무제공자, 1인 자영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임.
- 기존 프리랜서 연구들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한바 있음.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2018년 기준 모델3은 약 363만명(모델3)에서 400만명(모델4)으로 취업자의 13.8% 내외로 볼 수 있음. 물론 프리랜서 정의와 구분 방법에 따라 차이는 달라 질 수 있음.
 - 프리랜서 성별 분포는 모델3 기준 남성이 69.7%(여성 30.3%)이고, 모델4 기준 65.7%(여성 34.3%)였음. 프리랜서 연령 분포는 모델3 기준 30대 이하가 14.6%이며, 모델4 기준 30대 이하는 15.9%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시기 국내에서도 프리랜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나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이제는 ‘노동 밖의 노동’ 혹은 ‘제도 밖의 노동’으로 불리는 프리랜서 노동형태를 다차원적으로 고민할 시점임. 이미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제도적 보호나 이해당사자 주체들이 형성되어 다양한 제도적 모색과 지원을 추진한지 오래된 상황임.

〈주요 국가 주요 프리랜서 제도〉	〈주요 국가 주요 프리랜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오토-앙트러프러너 제도 : 프리랜서 사회보험 가입 편의성 제공(과거) · (독일) 쿨룸연금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연금 보험 · (영국) 우산회사 : 프리랜서 고용 통해 프리랜서 조세, 국민보험기여금 납부 대행제도 · (일본) 일본 각 부처별 프리랜서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프리랜서 협동조합 '스마트(SMart)' 통해 법률·행정·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프랑스) 프리랜서 협동조합(코파남, Coopaname) :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 필요한 지원, 급여·세금신고 및 환급·보험 등 업무 수행 위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지원 · (미국) 프리랜서스 유니온(freelancersunion) : 보험사와 협상 통해 의료보험 상품 가입 지원

[별첨자료1] 프리랜서 규모 추정 현황 - 산업, 직업

[부표1] 프리랜서 산업업종별 규모(2019, 단위: 천명)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농업, 임업 및 어업	1	.2	888	21.5	890	19.1	891	16.9
광업	0	.0	0	.0	0	.0	0	.0
제조업	5	.9	204	4.9	208	4.5	220	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	.0	0	.0	0	.0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0	2	.1	2	.1	2	.0
건설업	7	1.1	257	6.2	257	5.5	272	5.2
도매 및 소매업	40	6.8	791	19.2	906	19.5	912	17.3
운수 및 창고업	0	.0	582	14.1	608	13.1	609	11.6
숙박 및 음식점업	0	.0	326	7.9	329	7.1	332	6.3
정보통신업	47	7.8	48	1.2	51	1.1	70	1.3
금융 및 보험업	3	.5	25	.6	235	5.1	243	4.6
부동산업	84	14.0	108	2.6	134	2.9	163	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	10.3	77	1.9	81	1.7	113	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9	47	1.1	72	1.6	81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0	0	.0	14	.3
교육 서비스업	246	41.3	248	6.0	309	6.6	633	1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1.5	11	.3	14	.3	8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6	12.8	134	3.2	146	3.1	185	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1.8	373	9.0	407	8.7	439	8.3
가구 내 자가소비 생산활동	0	.1	5	.1	5	.1	7	.1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0	.0	0	.0
전체	596	100.0	4,126	100.0	4,654	100.0	5,272	100.0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부표2] 프리랜서 직업별 규모(2019, 단위: 천명)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관리자	0	0.0	0	0.0	1	.0	4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96	100.0	596	14.4	681	14.6	1,295	24.6
사무 종사자	0	0.0	62	1.5	76	1.6	76	1.4
서비스 종사자	0	0.0	539	13.1	562	12.1	562	10.7
판매 종사자	0	0.0	746	18.1	1,065	22.9	1,065	2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882	21.4	884	19.0	884	1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	0.0	379	9.2	385	8.3	385	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0.0	725	17.6	753	16.2	753	14.3
단순노무 종사자	0	0.0	198	4.8	248	5.3	248	4.7
전체	596	100.0	4,127	100.0	4,655	100.0	5,272	100.0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별첨자료2] 지역별 프리랜서 기초 현황 - 소득, 시간, 교육

[부표3] 지역별 프리랜서 소득 현황

	평균 소득(만원)					소득격차(%)[서울=100]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전 체	128	251	257	254	242	73.9	90.9	103.7	103.0	108.0
서 울	174	276	248	247	224	100.0	100.0	100.0	100.0	100.0
부 산	200	207	255	256	240	115.1	75.0	102.6	104.0	106.9
대 구	199	178	225	219	209	114.7	64.5	90.5	88.9	93.4
대 전	43	183	281	269	264	24.6	66.1	113.3	108.9	117.9
인 천	141	257	310	299	285	81.0	93.0	124.6	121.4	127.1
광 주	100	100	313	303	278	57.5	36.2	125.9	122.9	123.8
울 산		270	260	256	223	0.0	97.8	104.6	103.7	99.4
경 기	112	253	283	276	266	64.3	91.5	114.2	112.0	118.6
강 원	33	135	296	284	267	18.8	48.8	119.3	115.2	119.3
충 북		201	224	236	234	0.0	72.6	90.0	95.9	104.5
충 남	94	164	237	240	233	54.0	59.3	95.4	97.4	104.1
전 북	104	974	273	270	255	59.9	352.3	109.9	109.3	113.9
전 남	126	272	251	249	240	72.7	98.4	101.1	100.9	107.1
경 북	187	155	193	199	197	107.8	56.2	77.7	80.8	87.9
경 남	97	164	228	229	219	55.6	59.3	92.0	93.0	97.5
제 주			181	181	181	0.0	0.0	72.8	73.3	80.9
세 종	80	307	225	225	225	46.0	111.0	90.8	91.4	100.6

주 :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는 다른 국가 혹은 정부기관 조사하는 노동통계 데이터 중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별 분석시 모집단 추정에 한계가 있음(가중치는 통합패널)

[부표4] 지역별 프리랜서 노동시간 현황

	노동시간					노동시간 격차(%)[서울=100]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전 체	24.5	34.8	46.7	46.4	45.9	85.3	94.4	98.9	99.0	99.8
서 울	28.7	36.9	47.2	46.8	46.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 산	30.0	27.5	49.0	49.2	47.8	104.5	74.7	103.8	105.1	104.0
대 구	19.2	33.4	48.8	47.2	47.7	66.9	90.7	103.4	100.8	103.7
대 전	21.4	43.8	52.2	52.0	52.0	74.6	118.7	110.5	110.9	112.9
인 천	24.5	37.6	49.4	48.9	48.2	85.3	102.1	104.6	104.4	104.8
광 주	30.0	35.5	44.7	43.4	42.4	104.5	96.2	94.8	92.6	92.1
울 산		32.0	44.8	44.9	43.4	0.0	86.8	94.8	95.9	94.4
경 기	21.7	35.2	46.3	46.0	45.7	75.5	95.5	98.1	98.2	99.2
강 원	27.4	36.7	53.6	53.6	53.6	95.3	99.7	113.5	114.4	116.4
충 북		35.0	42.1	41.9	41.7	0.0	95.0	89.2	89.4	90.7

	노동시간					노동시간 격차(%) [서울=100]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총 남	18.5	22.8	49.5	48.8	48.8	64.3	61.8	104.9	104.2	106.1
전 북	21.2	29.2	45.8	45.8	45.5	74.0	79.1	97.0	97.7	98.8
전 남	27.8	27.6	42.0	42.2	41.8	97.0	74.8	89.0	90.1	90.7
경 북	25.9	28.6	48.8	48.4	48.3	90.4	77.7	103.4	103.3	105.0
경 남	28.1	33.3	44.3	44.0	43.3	97.8	90.3	93.8	93.9	94.2
제 주		48.0	39.0	39.0	39.0	0.0	130.2	82.7	83.3	84.8
세 종	6.0	38.2	39.7	39.7	39.7	20.9	103.5	84.0	84.7	86.2

[부표5] 지역별 프리랜서 업력 경력기간 현황

	경력기간(년)					경력년수 격차(%) [서울=100]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전 체	13.0	10.4	13.7	12.9	11.5	80.9	82.6	115.3	111.5	123.8
서 울	16.0	12.6	11.9	11.6	9.3	100.0	100.0	100.0	100.0	100.0
부 산	8.8	5.3	15.1	14.2	11.6	55.1	42.2	126.9	122.2	124.2
대 구	15.2	8.9	13.2	12.4	11.3	95.0	70.8	110.8	107.3	121.9
대 전	6.0	8.3	11.3	10.9	10.5	37.7	65.9	95.3	94.2	113.3
인 천	5.7	9.0	10.5	10.0	9.2	35.3	71.4	88.4	86.1	98.9
광 주	6.3	4.8	10.5	9.6	8.3	39.5	38.0	88.7	82.5	89.2
울 산		10.3	16.8	16.0	12.4	0.0	81.7	141.5	137.7	133.6
경 기	11.6	8.5	10.6	10.0	8.9	72.5	68.1	88.8	86.1	96.2
강 원	40.0	26.6	20.1	17.7	13.7	249.4	211.8	169.2	152.5	147.1
충 북		8.4	13.0	11.9	11.3	0.0	67.3	109.6	103.0	121.5
충 남	15.8	13.3	18.6	17.3	16.3	98.2	106.0	156.5	149.3	174.9
전 북	12.5	11.9	16.7	16.5	16.1	78.1	94.6	140.2	142.4	173.3
전 남	6.9	4.3	21.4	21.4	20.3	43.0	34.4	179.7	184.2	218.1
경 북	20.0	16.7	17.7	15.3	14.9	125.0	132.8	148.7	131.9	159.6
경 남	13.4	12.0	13.0	12.3	11.1	83.6	95.2	109.4	105.7	119.1
제 주		7.9	14.6	14.6	14.2	0.0	63.1	123.1	126.3	152.1
세 종	13.8	7.4	11.3	11.3	11.3	85.7	58.6	95.4	97.8	121.8

[부표6] 프리랜서 지역별 경력기간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단위: 년)

	취업자	프리랜서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1인 자영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전 체	7.7	7.4	5.7	10.1	11.0	8.8	9.4	11.0	10.5	8.9
서 울	8.5	8.0	5.5	11.2	12.6	9.9	8.2	12.6	12.0	10.7
부 산	7.9	7.9	4.4	11.3	13.1	12.2	9.3	13.1	12.1	11.0
대 구	7.6	7.8	4.4	7.4	10.8	5.5	4.9	10.8	9.7	9.4

	취업자	프리랜서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대 전	7.6	7.2	4.4	9.5	11.1	6.7	7.6	11.1	10.4	9.8
인 천	7.8	9.0	3.7	7.6	11.6	7.7	7.3	11.6	11.0	8.9
광 주	9.6	9.8	6.2	8.1	14.1	10.5	9.2	14.1	13.1	11.8
울 산	7.7	8.1	4.4	10.2	10.0	8.2	7.5	10.0	9.3	8.5
경 기	10.5	9.7	4.4	13.6	15.3	12.9	11.3	15.3	14.8	13.7
강 원	8.2	8.6	4.8	8.6	13.1	10.8	7.3	13.1	11.8	11.1
충 북	10.6	7.4	5.1	14.5	19.1	15.9	12.7	19.1	18.3	17.7
충 남	11.7	10.5	5.2	10.2	18.5	13.4	12.0	18.5	17.7	16.0
전 북	12.2	9.1	4.8	11.7	20.4	18.0	13.5	20.4	20.1	19.4
전 남	10.6	8.6	4.7	10.4	17.7	18.6	15.2	17.7	16.3	15.8
경 북	8.9	8.2	5.4	11.1	14.4	14.8	12.9	14.4	13.9	12.7
경 남	10.3	9.7	7.3	8.7	12.4	6.9	5.5	12.4	12.4	12.2
제 주	9.8	10.6	7.4	5.6	10.5	6.7	7.0	10.5	10.5	10.4

[부표기] 프리랜서 지역별 교육훈련 유경험자 현황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전 체	8	4.0	24	3.5	229	6.3	302	7.5	324	6.9
서 울	0	0.0	0	0.0	6	1.2	10	2.0	26	3.5
부 산	0	0.0	0	0.0	4	2.4	8	4.8	13	5.2
대 구	0	0.0	0	0.0	0	0.0	0	0.0	0	0.0
대 전	0	0.0	0	0.0	2	2.5	4	3.6	4	3.5
인 천	0	0.0	0	0.0	0	0.0	0	0.0	0	0.0
광 주	0	0.0	0	0.0	4	3.8	9	7.3	9	6.1
울 산	0	0.0	5	29.3	7	14.5	7	13.6	7	10.2
경 기	0	0.0	3	1.7	47	5.5	54	5.9	57	5.3
강 원	0	0.0	0	0.0	0	0.0	0	0.0	0	0.0
충 북	0	0.0	0	0.0	7	5.3	8	5.5	8	5.1
충 남	3	16.7	3	12.2	65	30.4	69	30.1	69	28.1
전 북	0	0.0	0	0.0	31	15.1	31	14.9	31	13.4
전 남	0	0.0	4	17.0	9	4.2	9	4.2	9	4.0
경 북	0	0.0	3	18.5	43	17.1	81	25.4	81	24.5
경 남	5	14.0	5	9.5	5	1.8	11	3.4	11	3.0
제 주	0	0.0	0	0.0	0	0.0	0	0.0	0	0.0
세 종	0	0.0	0	0.0	0	0.0	0	0.0	0	0.0